현장 경험의 리얼리즘
노동자 출신 영화배우 강방식

글 · **윤승일** nagneyoon@empal.com

"야 너 배우 한 번 해볼래?" "배우? 형님이 하라면 하죠. 그런데 기왕이면 주연배우 시켜줘요" 노동법 해설 인터넷 동영상 강좌로 노동계에서는 이름이 알려져 있던 강방식(40) 씨에게 뜬금없는 제안을 한 이는 김은천 씨(43세, 'OO씨의 하루' 에서 문가역)였다. 강 씨가 안양에서 노동자로 살던 시절부터 모시던 선배였기에, 영화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강 씨는 김은천 씨의 제안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 뜬금없는 소리가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강 씨가 선배 김은천 씨를 통해 〈조폭마누라〉 조감독 출신인 박정훈 감독을 만나기까지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고 영화배우의 길로 들어서기 까지는 3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걱정도 앞섰지만 "평생 언제 영화에 출연해보겠냐" 라는 생각에 해보겠노라고 약속했다. 게다가 강 씨의 역할은 대사도 길지 않았다(수정된 시나리오에는 강 씨의 대사는 무진장 늘었다고 한다).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온 터였다.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는 영화이니 일상처럼 하면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았다(영화 속에서 용접기계로 라면을 끓여먹다 사장이 나타나자 기계 사이로 도망 다니며 젓가락질 하는 모습에서, 족구하는 모습에서 그들은 연기가 아니라 실연처럼 보인다).

영화와의 만남이 정해진 운명이란 것을 강 씨는 처음 카메라 앞에 선 날 알았다. "슛……. OK" 감독의 외침은 늘 파도처럼 덮쳐오는 운명과 맞설 때 스스로 자신을 조련하던 다짐과도 같았다. "처음엔 소주 한 병 먹고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막상 카메라 앞에 서니 하나도 떨리지 않더라구요. 오히려 나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듯 한 느낌이……" 강 씨 목소리는 그때의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듯 작게 작게 떨리기 시작했다.

가난이 업처럼……. 그러나

국토의 끝인 전남 해남 바닷가에서 태어나 지긋지긋한 가난을 업보처럼 업고 살았다. "결혼을 앞두고 집사람을 인사시킨다고 시골에 데려갔잖아요. 집 바로 앞이 바닷가에요. 집에 인사하자마자 바닷가 모래밭에 주저앉아 그냥 울더라고요. 그 이유를 첫 애를 낳고서야 들었어요." 지금의 든든한 동지인 집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전세방 한 칸은 얻어 줄 형편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 전세방은커녕 월세방도 못 얻을 형편 같아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험난한 미래가 걱정이 돼 울었다는 것이다.

대학은 아예 꿈조차 꾸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울산으로 건너가 용접 일을 배우고 용접공으로 살면서 가난을 떨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열심히 일했다. 주야 맞교대 덕에 함께 간 친구의 얼굴은 고작 구내식당에서 밥 먹을 때나 볼 수 있었다. 밤이면 용접기 불빛에 닦달을 당한 자갈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눈을 아이스크림의 냉기로 식혀야만 겨우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힘겨운 생활이었다.

"서주 아이스크림이라고 있었어요. 우유로 만든 건데 그걸 봉지재 테이프로 눈에 붙여

요. 그러면 아침에 잃어나면 다 녹죠. 그걸 우유 삼아 마셨다니까요" 용접공 생활을 청산하게 한 것은 달빛이었다. 거대한 크레인을 움직이는 바퀴에 발을 다치는 산업재해를 당한 친구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 병원과 일터, 일터와 병원, 다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다. 코피를 쏟아도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 일을 버릴 수 없었고 친구를 혼자 내버려둘 수도 없었다. "현장에서 화장실은 꽤 멀어요. 야근 중에 화장실을 가는 데 달이 너무 밝았어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는 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구요."

그 길로 서울로 왔다. 갈 곳이 없었다. 앞서 서울로 올라 온 친구들을 찾았다. 속옷을 만드는 공장. 친구들은 기숙사에 있었다. 무릎까지 꿇었지만 그 공장은 강 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접공은 일당이 셌거든요" 급여를 낮춰 받겠다고 사정했지만 공장은 강 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 "다른 업종일지라도 급여 차이에 대한 소문이 나면 공장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 강 씨는 혼자였다. 그 절절한 외로움을 알기에 강 씨는 독립영화 판에서 일하는 이들을 사랑한다.

영화 〈○○씨의 하루〉에서 맨 앞에 앉아 있는 이가 강 방식.

"그냥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출연 제의가 오는 거예요." 내친 김에 나섰다. 〈불온한 젊은 피〉의 박미희 감독이 강 씨를 찾았다. 강 씨가 주연으로 출연한 이 영화는 2008년 대종상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제 7회 미장센단편영화제에서는 4만 번의 구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물론 강 씨가 직접 수상하지는 않았지만 기분 좋은 일이었다.

인터넷 노동법 해설 노무사로 활동

어린 시절 이유 없이 진지해지곤 하던 강 씨, 그 이유는 한 권의 책이었다. 공부를 해야겠다고 찾아 간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인연을 맺은 선배가 선물해 준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책 한권이 이유 없는 진지함을 이유 있는 실천으로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홀로 잘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스스로 버릴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 "아이까지 생기니 먹고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 제대 후 늘 현장에서 머물던 강 씨였다. 나 홀로 잘 살자고 이제까지 지켜왔던 원칙을 버릴 수는 없었다.

"생활비는 내가 벌테니 당신은 열심히 운동을 하라"는 부인이 있었지만 그러기에 강 씨는 '한국남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운동을 떠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길, 강 씨는 자신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익혔던 노동법에서 답을 찾았다.

2001년 8개월의 고시원 생활 끝에 '강방식의 노동법 교실'이라는 실무중심의 노동법 동영상 강좌를 제작해 웹사이트도 개설할 정도로 자신이 있었다. "전화번호부를 갖다 놓고 노무사 사무실에 이력서를 무조건 보냈어요." 수없이 보낸 이력서에 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 간단하지 않은 면접이었으나 결국 강 씨는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이라는 명함을 얻었다. 실무형 이론가였던 강 씨에겐 날개를 얻은 셈이었다. 열심히 일했다. 특히 산재 문제는 더 열심히 매달렸다.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거든요. 산재 인정을 못 받으면 그 가족은 파탄이 나요." 이름이 나기 시작했고 돈도 벌었다. 그러나 허전했다. 함께 기계를 움직이고 함께 족구를 하던 그 시절 만 못했다. 특히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견디기 힘들었다. 모든 게 자기 잘못 같았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 나이 탓이었을까? 아니면 절절한 외로움 탓이었을까? 아니면 언젠가 귀향을 하겠다는 각오가 스러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곤충농장 정착

또 다른 진로를 모색하던 강 씨에게 군산의 선배가 제안을 했다. "하우스가 한 2,000평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우스 갖고 뭐든 다른 것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때 함평나비축제라는 걸 알게 됐다. 직장을 그만두고 뉴질랜드로 안식년 차 떠나있던 아내를 불렀다. 모처럼 가족이 함께 모였다. 그렇게 지금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곤충농장이 시작됐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 인근에 터전을 잡았다.

그 곤충농장으로 인해 영화배우가 될 수 있었다. 아마도 현장에 남았더라면 영화는 강 씨의 삶에 비집고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시간이 없었어요. 현장 활동이라는 게 늘 바쁘잖아요." 그러나 강 씨는 여전히 현장에 있다. 1년여 만에 14편의 영화에 출연할 정도로 바쁜 것도 여전하다. 다만 과거의 강 씨가 현장 중심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 현장을 '영화'라는

"영화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감독의 숏 소리와 함께 나만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면서도 내 세계가 열리는 거지요. 그래서 배우가 좋은 것 같아요."

스펙트럼을 통해 조망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한 걸음 물러나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노동현장은 분명 달라 보인다. 그 달라보임은 아직 강 씨에게 '카오스'다.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노동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영화판 역시 아직은 이질감이 든다. 아직 그 이질감의 정체를 분명하게 모른다. 그 이질감은 문화의 차이보다는 40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무대를 만드는 일에만 매달려 온 강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모두에게 집중을 받는 배우의 자리로 바꾼데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노동자의 시선으로 영화를

우연히 강 씨의 삶에 비집고 들어 온 배우의 삶. 14편의 영화에 출연한 단편영화계에서는 제법 이름을 알린 지금도 배우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데 어색하다.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촬영 현장의 분위기가 못내 어색하고 갈채라도 받을라치면 다른 스텝들의 땀을 훔치는 것 같아 죄송스럽다. 그래서 아직은 여느 배우들처럼 자신의 연기에 대해 설명할 줄 모른다. 그래서 다시 무대를 준비하는 자리를 자처 한다.

그의 주머니에는 여러 장의 명함이 들어있다. 곤충농장 대표, 영화사 제작이사, 문화기획사 대표 그리고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강방식의 노동법 교실 운영자, 영화를 통해 새로 맺은 인연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기도 하거니와 남이 차려주는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들어가는 것은 강 씨 성격에도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강 씨에게 어쩌면 배우라는 직업은 자신의 꿈으로 올라가는 또 하나의 계단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꿈은 여전히 그리고 아마 영원히 가난이 파도처럼 덮치는 그의 고향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영화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감독의 숏 소리와 함께 나만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면서도 내 세계가 열리는 거지요. 그래서 배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강 씨를 바라보는 독립영화 판의 기대는 독립영화 출신의 쓸 만한 배우가 곧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 소원이 이뤄지면 한국 영화계에도 리얼리티를 연기하는 진짜 노동자 출신 배우 한 명을 갖게 될 것이다.

글 **윤승일** | 자유기고가로 활동하며 현재 〈한겨레21〉 기획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